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재임 2018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전국한우협회는 2월 28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2018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과 제9대 회장 및 부회장·감사 선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9대 회장 및 부회장·감사 선거에선 단독 입후보한 김홍길 회장의 재임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부회장에는 선출직에 하태문 후보, 지명직에 김충완 후보가 선출됐으며, 당초 부회장 선출직에 입후보했던 홍재경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선출직 부회장 한자리 공석은 추후 총회에서 채워질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올해 운영 목표를 '한우산업 안정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한우가격 안정과 생산기반 구축, 소비자 지향적 생산과 유통확대, 협회 정체성 확립과 조직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민족산업 등을 4대 과제로 정했다.

아울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온 국민과 함께하는 민족산업 한우가 되도록 품질과 환경을 갖추고, 구제역 차단방역 등 질병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우협회, 서울시와 한우나눔 진행 매월 아동 1,000명 한우고기 제공

전국한우협회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매월 아동 1,000명에게 한우고기를 제공한다.

한우제공 대상은 지역아동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의 아동·청소년이며, 월 1회(1인 100g상당) 한우 1등급 이상의 국거리, 불고기 재료용 한우고기 또는 한우곰탕 등이 직 배송 식재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우 나눔 대상 선정은 복지시설 중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이 50% 이상인 곳을 각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 한우고기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대상 추천, 식품검수 등 행정지원을 하고, 한우협회는 한우 물품 및 배송을 각각 담당한다.

이 사업은 한우협회가 지난해 서울시와 체결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한우 나눔을 위한 지역사회공헌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올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한우 나눔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 것을 한우 농가를 대표해 기쁜 마음을 전한다. 시민들이 우리한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동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돈자조금, 2018 홍보대사 위촉
● 새 얼굴에 배우 장동건 씨



배우 장동건 씨가 2018년 한돈 홍보대사로 위촉돼 본격적으로 한돈 우수성 알리기에 나선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장동건 씨를 2018 한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장동건 씨는 홍보대사 위촉식과 TV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돼지고기 한돈의 우수성과 한돈산업의 위상을 대중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 장동건 씨의 기품 있는 이미지와 중후한 카리스마가 한돈의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촉식에서 장동건 씨는 “평소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편인데, 한돈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태식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돈이 될 수 있도록 배우 장동건 씨가 홍보대사로서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돈자조금, 삼겹살데이 이벤트
● 패키지 할인판매 특별기획전



한돈자조금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월 22일 경북 김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서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 정상은 사무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재호 원장, 오상균 시험연구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다 적발되고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농관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 시연회를 열어 과학적 원리 및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판별법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였다.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은 국민들이 믿고 사랑해주는 국산 돼지고기 한돈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이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면 한돈자조금에서도 농관원의 단속활동과 판별법 개발 등을 적극 홍보해 부정유통을 차단하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위원회 ● 제9대 임원진 구성



한국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위원회는 2월 2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1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도 여성분과위원회 사업계획 수립과 여성낙농인 교육 세부계획과 제9대 여성분과위원회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여성분과위원장에 이명규 위원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농가치즈제조 교육을 비롯,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과 여성낙농인 선진지 연수교육 사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9대 여성분과위원회를 다시 한 번 이끌게 된 이명규 위원장은 “협회 여성분과위원회는 회원들간의 신뢰와 화합으로 잘 다져진 조직이다.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소 부족했지만 매년 회원들의 성원과 협조로 각종 사업들을 무난히 진행해올 수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어려워져 가는 국내 낙농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다.

● 육우자조금, 박대안 위원장 선출 ● 육우가 사랑받도록 최선다하겠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새 수장으로 박대안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가 선출됐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2018년 제2회 육우자조금대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예산안과 3기 위원장 및 대의원을 선출했다.

육우자조금은 2017년 95.9%의 예산 집행률을 달성했다. 2018년도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주요사업 목표로는 육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우수성 홍보, 육우 홍보행사를 통해 육우에 대한 인식 제고, 소비유통 활성화를 통한 수급안정 도모 등이 설정됐다.

2018년 사업예산은 16억원으로 농가거출금 8억 4,000만원과 정부지원금 7억1,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4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난해 예산과 비슷하다.

신임 박대안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2018년은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이끌어 갈 제3기 위원들로 새롭게 구성되는 등 변화가 있는 해이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농가, 업계관계자 등 모두의 힘을 합쳐 육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계협회, 2018 제1차 이사회
● 오세을 전 회장 공로패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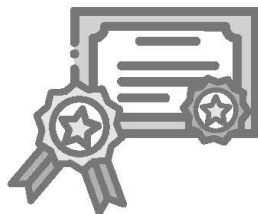
대한양계협회는 2월 24일 대전 유성 라온컨벤션호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7년 결산감사, 2017년 수입지출 결산, 2017년 사업결산, 계란 안전성 관련 추진사항, 고병원성 A 관련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2018 년도 수지에산(안), 2018 년도 사업계획(안), 2017년 양계산업발전유공자 포상계획(안), 정기회비 인상 계획(안), 급여 규정 일부 개정(안), 현안 사항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20대 회장으로서 양계산업 발전에 힘써주신 오세을 전 회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있었다.

이홍재 회장, 채란위원회, 증계·부화위원회, 육계위원회, 축단협 등에서 오세을 전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다.



● 양봉협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 업적 이어받고 잘못된 관행 개혁



한국양봉협회는 3월 6일 세종 오티움웨딩홀에서 협회 임직원과 회원,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1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황협주 회장은 “우리 양봉협회는 1967년 설립 이후 52년간 발전을 거듭해왔다”면서 “그간 역대 회장들이 이뤄놓은 업적은 이어받으면서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농축산업은 생산 등 1차 산업과 제조·가공 등 2차 산업, 유통·서비스 등 3차 산업을 합친 6차 산업의 바람이 부는 등 제2의 농축산업 혁명이 시작됐다”며 “양봉업계 역시 다자간 FTA 체결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과 외래종에 인한 피해, 높아져가는 소비자들의 요구 등으로 인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고 강조했다.

